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14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 당 자	• 시민소통팀장 안성기 ☎440-2016 • 담당자 최대리사 ☎440-201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집단민원 해결 위한 ‘소통의 날’ 지속 추진

- 14일, 민선8기 두 번째 ‘집단민원 소통의 날’ 열어 -
- 진심과 배려의 소통으로 집단민원 해결 방안 모색 -

인천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소통 테이블에 앉았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4일 소접견실에서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통해 장기 미해결 주요 집단민원 대표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정기적으로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3일 첫 소통의 날 운영에 이은 두 번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8기 3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소통’을 내세우며 출범 이후 인천시의 여러 집단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적극 소통해 왔었다. 이번 소통의 날 운영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난 집단민원은 ▲송도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반대 ▲캠프마켓 반환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인천시정 현안에 대한 건의 제안 ▲푸른송도배수지 무단점유 대집행 보상요구 등 총 4건이다.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고>

이들 민원은 지난 몇 해에 걸친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별 면담을 통해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소통의 장에는 송도시민총연합회 공동대표, 부평숲추진위원회위원장, 인천총연합회 공동대표, 소망기도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진심과 배려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인천시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권리신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집단민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성격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갈등 해결이 어렵다.” 면서 “집단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아가겠다.” 고 강조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제2차 집단민원 소통의 날 안전내용

제2차 집단민원 소통의 날 안건내용

연번	안건명	민원 주요내용
1	송도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반대	○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인천송도9공구 아암 물류2단지 내 550면 규모 화물차주차장 건설 반대 - 송도 지역주민 밀집 거주지역 1km이내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 *주민안전 위협, 학교통학 위험, 크루즈항 배후단지 화물차주차장은 타지역 수요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2	캠프마켓 반환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모든 건물 철거하고 완전 정화 후 공원조성 -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인근 지역주민 참여 보장 [담당부서: 캠프마켓과]
3	인천시정 현안 건의 제안	○ 인천광역시총연합회 ¹⁾ 시정현안 건의, 제안(5건) - 영종지역 통행료 무료, 국립대병원 분원 인천 유치, 지하철9호선 직결, 제2공항철도 신설, 행정체제 개편 민관공 추진단 구성 [담당부서: 시정혁신담당관]
4	푸른송도배수지 무단점유 대집행 보상요구 (1인 시위)	○ 푸른송도배수지 부지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19.3.20.)에 대한 보상 요구 - 기도원 신축, 행정대집행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 보상 요구 등 * ‘19.10.~’22. 9월 현재까지 1인 시위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

1) 인천지역 자생단체, 커뮤니티가 모여 창립(2020.12.20.). 21만명 규모의 인천시민 회원으로 구성, 다양한 정책 제시, 지역간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단체(비법인사단)